



◇양영화 원장이 치매와 중풍을 앓고 있는 할머니를 돌보고 있다.

포천 '산마을 목련의 집' 노인들

중풍·치매로 고통의 나날

경기도 포천군 '산마을 목련의 집'에는 오갈 데 없는 노인 12명이 살고 있다. 모두 치매와 중풍을 앓고 있지만 치료는 물론, 간병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해서다. 하지만 현실은 양 원장의 아름다운 뜻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았다. 마음만 앞설 뿐, 운영비와 일손 부족으로 만족할 만큼 노인들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

11번째 치매를 앓고 있는 김미자가명, 73 할머니는 5년 전 자식들로부터 버림받고 이곳에 왔다. 오랜 외병생활로 대소변을 받아내던 며느리가 집을 나갔고, 이로 인해 충격 받은 아들 또한 가출해버렸다. 김 할머니는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 하다보니 이런 사실조차도 모른다.

한달 평균 4백만원 넘게 들어가는 운영비는 한계상황을 넘은 지 오래다. 매달 100만원 정도 지원받고 주변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부족분은 고스란히 빚으로 쌓이고 있다.

돌출행동 눈 뿜수 없어

운영비 태부족... 빚더미

박명자(가명, 75) 할머니는 지난해 겨울 자식을 손에 이끌려 이곳에 온 뒤 지금까지 자식들 소식을 전혀 모른다. 박 할머니는 "긴 병에 효자가 어디 있었어. 늙어서 아들, 며느리 고생시킬 바에야 일찌감치 죽어야 하는 데..."라며 긴 한숨을 쉰다.

양 원장은 오늘도 봉사자들의 후원과 자원봉사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한다. 전화: (031)534-8554 주소: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구읍리 413번지 후원 계좌: 농협 225047-52-191994 경기도 포천=김철우 기자

2월 21일 (목)

■조계사 '정월보통참배' = 조계사는 새벽 6시 30분 조계사에서 출발해 강원도 영월 법흥사와 정암사 등을 둘러보는 정월보통참배 여행을 떠난다. 참가비는 2만 5천원. 또한 24일에도 통도사로 보궁참배를 떠난다. 참가비는 같다. (02)732-2183

2월 23일 (토)

■금강불교문화교육원 '선무도 체험' = 중국에 소림사가 있다면 한국에는 골굴사가 있다. 23일은 한국 선무도의 맥을 잇고 있는 골굴사 선무도 승단대회를 열리는 날. 금강불교문화교육원은 경주 골굴사 선무도 승단대회를 관람하는 여행을 마련했다. 출발은 저녁

신행 캘린더

9시 서울 하안동 본원. 참가비는 3만 5천원. (02)893-2700

■선덕사 '참나찾기' 청소년 캠프 = 청소년들이 사찰에 머물면서 참나 수행을 하는 '참나' 찾기 수련회가 광주 선덕사에서 28일까지 열린다. 이 행사는 사찰 문화를 체험하며 자아 발견과 진로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23일부터 3일 동안은 중학생 수련회가, 27-28일 양일간은 초등학생 수련회가 열린다. 참가비는 초등학생 2만원, 중등학생 6만원이다. (062)263-4660

2월 24일 (일)

■두레생태기행 '성지순례' = 두레생태기행이 금산사, 견월묘, 개태사 등 전라북도 불교 유적지를

둘러보는 1박 2일의 성지순례를 마련했다. 금산사는 불교 왕국 고려 건국에 큰 영향을 준 곳.

이번 성지순례에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쥐불놀이 행사도 계획돼 있다. 쥐불놀이용 강통은 각자가 준비. 출발은 오전 8시 서초구청 앞. 참가비는 8만 5천원. (02)712-5813

■삼광사 '사회복지기금마련' 일일시장은 부산 삼광사에 오전 8시 초음속 삼광사 앞마당에서 사회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시장을 개최한다. 이날 일일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은 기업체가 후원한 새것이다. (051)808-7111

2월 26일 (화)

■양정 청소년수련관 'Dance Festival' = 댄스, 댄스, 댄스... 요새



◇지난해 열렸던 '양정 댄스 페스티벌'.

청소년들에게 댄스는 기본. 춤 잘 추는 친구들이 인기 '짱'이다.

양정 청소년수련관은 오후 3시 본원에서 댄스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 경연대회에는 부산 유명댄스 그룹들도 참가한다. 우승자에게는 우승트로피와 상금 10만원. (051)868-0750

■옥수종합복지관 '정월대보름 연날리기' = 연날리기, 투호, 제기차기, 엿치기, 민속사자놀이... 풍성한 전통문화를 어린이들이

만끽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된다. 오후 2시 옥수동 옥정초등학교 운동장. (02)2282-1100

■수원포교당 '금강경' 강의 = 수원포교당 거사사승에대국대학교 교수 묘주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마련한다. 시간과 장소는 저녁 7시 30분 본원 불교문화원 2층 관음전. 참가비는 무료. (016)271-6484

2월 28일 (목)

■터사랑 '성지순례' = 무박 2일로 여수 향일암, 홍곡사, 오동도 등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 부처님이 머물렀다는 세존도, 용궁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감응도, 이미 타불이 화현했다는 미타도 등이 있는 향일암은 대표적인 기도사찰. 참가비는 어른 5만 5천원, 청소년 5만원. (02)725-1284

“이웃에 도움되는 삶 살고 싶어요”

우리 절 우리 신도

보장사 청년회 살림꾼 황상필 씨

9일 안양시 유원지 입구에 위치한 보장사(주지 덕해) 내달 문을 여는 영각당(납골당)을 갖춘 이 사찰의 법당에서는 이날, 지체장애로 팔 다리가 불편한 한 청년불자가 이마에 탐방울을 송송 맺은 채 정성껏 절을 하고 있었다. 4년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500~1000번의 절을 하고 있는 이 청년은 보장사 청년회(회장 서해성의) 살림꾼 황상필(34) 씨.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은 2년전. 김형락(40) 초대청년회장이 카페를 개설하고 청년회 유인철(37) 부회장과 황씨가 주도적으로 카페를 운영했다. 거동이 불편한 황씨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새안양불교청년회의 창립기념행사, 정기총회, 경기불청의 행사를 도맡아 일하고 참여도



◇황상필 씨는 인터넷을 통해 신도들의 신행을 돕고 네티즌 포교에 정성을 쏟고 있다. 든든한 후원자인 보장사 관공회 정옥선(왼쪽) 부회장과 자리를 함께 했다.

장애 딛고 매일 500~1000배 절 수행 인터넷 통해 사이버 포교·상담·홍보

구한다. 보장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안양노인복지센터(031-455-0651)의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모집에도 앞장선다. 또 보장사가 운영하는 대전 보문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장학금추진위원회(위원장 김형락)를 통해 매년 2회씩 전달하고 있다. 청년회 회보 편집, 노인복지센터 봉사 및 사찰 도량정소, 교리강좌 일정 등을 이메일을 통해 수시로 전달하는 일도 그의 몫이다.

이처럼 부지런한 그의 신행은 안양지역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불청경

장에 딛고 매일 500~1000배 절 수행

가지구회(회장 김명욱)로부터 새안양불교청년회 활성화의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패를 받기도 했다. 황씨는 서울 마포고등학교에 재학 시절, 학업성적이 뛰어난 문화청년이었다. 그러나 졸업 후 뜻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해 지체부자유자가 되었다. 동남보건전문대를 어렵게 졸업했지만, 몸이 불편해 취업도 힘들었다. 좌절하기 쉬운 젊은 나이에 황씨가 불교에서 희망을 되찾게 된 것은 4년 전. 지장전 아래층 공양간에서 일하던 어머니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면서부터다. 지장전 아래층

방들이 모두 무너졌지만, 어머니가 일하던 공양간만은 멀쩡했다. 33년간 보장사를 다녔던 어머니의 신심으로 호법신장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게 황씨의 믿음이다.

이때 황씨는 보장사 주지 덕해스님의 권유로 절을 시작했다. 오전 6시부터 11시반까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쉬어가며 절을 한다. 겨울철 온기 없는 법당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절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병 낫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성불을 서원하는 참기도를 하게 되었다.

33년간 보장사를 다닌 어머니 김초자(59) 보살은 인사동에서 운영하던 회랑을 정리하고 4년 전부터 자청해서 보장사의 공양주 소임을 맡고 있다. 자식의 건강회복을 기원하

주님의말

덕해 스님 안양 보장사 주지

사심 없이 임하면 만사가 성취됩니다. 모든 불사가 원만 성취되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사심 없는 마음과 신뢰입니다. 정성을 다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심에 들 것이지요, 일하는 사람은 일심에 들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황상필 군의 '절하기 수행'은 이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년 전 절 한번 하기 힘들었던 그가 이제는 혼자서 하루 1000배를 하고 보행도 가능한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청년회 활동은 물론 사찰의 대소사를 꼼꼼히 챙기고, 신도들에게 미소와 희망을 선사하는 일을 변함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황군의 밤심을 거울삼아 자신의 서원을 정성껏 성취하는 불자가 되길 바랍니다.

고 절 수행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다. 김초자 보살은 "주지 스님은 '더우면 절하기 힘들다'며 일부러 난방을 하지 않는다"고 웃으며 말했다. 주지 스님도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 겨울에 난방도 하지 않는 채 지내내 당연한 일이 아니냐는 것이다.

황상필 씨는 "큰스님께서도 일과 수행이 둘이 아님을, 정성껏 임하면 만사형통한다는 것을 강조하신다"며 "미리하나 큰스님을 본받아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삶, 나아가 중생을 구제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안양=김재경 기자

金河堂 光德 大禪師 涅槃 3주기 追慕法會 奉行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새로운 문명의 세기.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 속에 혼돈과 불안으로 잔뜩 왜소해진 인류에게 스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설교하셨습니다. 선교(禪敎)에 대한 깊고 넓은 지견과 실천적 수행을 겸비하시고, 뜨거운 신앙심과 서원으로 다진 수행공덕체인 '불광'을 창립하여 대중포교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순수불교운동지 원단「불광」을 발행하시어 문서포교의 새 장을 여신 선각자로, 대중불교의 횡설로, 수많은 업적을 남기셨으며, 그 빛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어 큰 빛을 나누시고 세간의 밝은 등불로 현신해오신 스님께서 열반하신 지 어느덧 3주기가 되었습니다. 열반에 드시는 순간까지도 전법으로 깨달음을 이루라는 간곡한 부촉을 잊지 않으셨던 스님의 부촉을 받자고 저희 대중들은 더욱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용맹정진할 것을 거듭 서원드리오며, 스님의 뜻과 행적을 기리는 추모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상좌대표 지정 회장 현선 김상규 합장

추모법회 법어/법일보성 큰스님(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 추모사/목우성오 큰스님(법어사 주지)

일시 : 2002년 2월 23일 (음력 1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 불광사 보광당

문의전화: 02-413-6060 ~ 2 | http://www.bulkwang.org | E-mail: webmaster@bulkwang.org 불광사 · 불광법회



금하당 광덕(金河堂 光德) 대선사

1927년 경기 화성 출생 | 1950년 부산 법어사 입산 | 1951년 부산 법어사 신원 청정인 정진 | 1955년 부산 법어사 동산 선사승 은사로 득도 | 1956년 미구계 수계, 대각회 창립, 초대회장 | 1958년 조계종 중앙집행위원 | 1962년 조계종 승무원 승무원장 | 1963년 대학생불교인협회 초대 지도부 | 1965년~1967년 불교사 주지, 학교법인 대동학원 이사 | 1966년 학교법인 원흥학원 이사 | 1969년 조계종 승무원 교무부장, 재단법인 대덕회 감사 | 1971년 조계종 승무원 중앙총회 부위원장 | 1974년~1979년 재단법인 대덕회 이사장, 순수불교 운동지 원단 「불광」 발행인 | 1979년~1999년 불광법회 창립, 법주 | 1977년~1999년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 역임 | 1979년~1999년 불광출판부 개설, 발행인 | 1990년~1996년 신철 대안선 법어사 금강계단 보살계 전개대장 | 1992년~1999년 도서출판 원광사 개설, 발행인 | 1993년~1999년 재단법인 보덕학원 이사 | 1999년 2월 27일 (음력 1월 12일) 열반

역사서 생의 회에서 그 해경까지, 삶의 빛을 찾아 빛의 목소리, 반야심경 강의, 보현행담 강의, 행복의 법칙, 애이러 없는 법칙기 인법과 책하지 않는 지, 신명재전, 육조대장, 부모은중경, 공음경, 지장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천수관음경, 법화요전 등 다수 찬불가 - 삼익 국악교실국 보현행담송 부모은중송 미하반야의 노래, 안웃 피는 날, 찬미한 이 아침, 초파일 송가, 밀로로 돌아오소서 님의 숨결, 임은 태평 위 대관, 존지 있을 때, 보디스바하, 우리는 불국도의 주인이요, 변형하는 사리의 기도 등 다수 찬서